

## 인사말

개혁과 쇄신이라는 시급한 현안에 마주하여 역사적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마음으로 종단의 문제점을 성찰하여 종단은 지난 6월 7일 제1차 쇄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법안이 제190회 중앙총회에서 진지한 논의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큰 혁신을 이루는 듯이 급작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쇄신의 대상이 된 주요한 항목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종단과 사찰 운영의 문제점으로 수시로 노출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종단 내외의 다양한 논의의 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결과물들이 현실의 안주 속에서 적시에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였기에 안타깝게도 문서로만 남아버린 우리의 과오라고 여겨집니다.

이렇듯 그간의 크고 작은 시행착오의 경험과 개선의 방향이 그때그때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거나 온전한 개선으로 실천되지 못해 왔지만, 결국엔 이러한 기록들이 쇄신계획을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어준 것입니다. 다시말해 전혀 몰랐던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미루어 왔기에 더 이상 물너날 수 없는 시급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 자리를 함께하신 분들은 이러한 착시적 오해를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쇄신의 필요와 개선의 공론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먼저 다가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반 여건상으로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촉박한 심정과 성공적 실행 여부에 대한 불안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법상으로도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적정한 경과조치와 유예기간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 자리와 같은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종단의 지난 10여년의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고려하지도 않고, 또

한 현실과 동떨어진 쇄신계획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쇄신계획의 제안과 소위 쇄신법안이라는 종법령의 제개정은 현시대에 맞는 사찰 운영을 한층 합리적 제도로 담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단 운영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더욱 활발한 실천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종헌 종법으로 다하지 못하는 사항은 시행령 등, 종령과 종무지침으로 보완하고 또 그 종법령을 현장에서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집행하느냐는 매우 실질적인 것이며, 오늘 이 논의가 갖는 커다란 의미라 할 것입니다.

특히, 당사기관의 의견 수렴과 논의 없이는 제도의 개선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중요한 산중총회법과 교구중회법 등은 오늘이 중요한 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앙중회 역시 관련 종법안이 본회의에 채택되어 있음에도 본사주지를 비롯한 제방의 지도자들의 의견을 크게 존중하고 반영하고자 그 처리를 신중히 하면서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승가구성원과 불자대중을 아우르는 공동체로서의 자부심도 쉽게 할 수 없으며, 민족의 문화를 선도한 전통의 계승자라는 사명도 가볍지 않기에,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현시대의 소임자의 의무로써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다 반영하여 하나의 뜻으로 이루어낼 수는 없지만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는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거듭하면서 하나씩 해소해 나간다면 이 또한 쇄신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구와 사찰의 운영에서 경험한 진중한 의견을 총무원과 쇄신위원회에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들은 무엇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면밀하게 점검하여 쇄신계획 실천에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한층 노력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쏟아진 빗물을 모두 다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흡수하여 토양을 잘

지게 하고, 울창한 수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뿌리에 수분과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바로 오늘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종도의 뜻을 소중히 하면서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